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정읍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이 오는 4월 30일로 마감된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 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

단,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전북
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실시

부안군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써 매년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관내 810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는 조사원이 각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민행복도 끌어 올릴 것”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등 주요 공공시설 점검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읍의 주요공공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을 등을 점검하며 군민 문화여가 증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심덕섭 군수는 올 6월 준공을 앞둔 고창읍 주민행복센터(구 읍사무소)를 찾았다. 지상 1층에는 민원실과 사무공간, 2층에는 대회의실과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서며 노래교실과 요가 등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

될 예정이다.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 가족상담,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심 군수는 “도시의 한 중심에 자리잡은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공공기관의 문턱을 대폭 낮춘 혁신적인 개념의 청사가 될 것이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행정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는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올 6월 준공을 앞둔 고창읍 주민행복센터(구 읍사무소)를 찾아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이어 고창읍 월곡리 '고창황윤석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았다. 도서관은 현재 지상 2층 골조 공사까지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살리기 위해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 형태이며 지하 1층은 공연장, 동아리실 등 생활문화센터, 지상 1~2층은 개방형 열람실, 자료 공간, 문화 강좌실, 청소년 공간과 북카페가 설치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서관 확충은 군민 누구나 비용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심 속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뜻”이라며 “획기적·창의적·세계적인 도서관을 건립하고 건강한 독생태계를 조성해 군민의 품격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군수는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현장을 찾았다. 고인돌박물관 뒤편에 총사업비 40억원(전북특별자치도 도비 20억원 등)을 투입해 네트형 모험 어드벤처시설과 초대형미끄럼틀, 곡선형 질의어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공사발주와 내년말 사업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다. 심 군수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자를 독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민대상 수상 격년제 전환

2024년 미선정·2025년 수상자 선정 예정

부안군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의 수상을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꾸어 부안군민대상의 권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군민대상은 1979년에 '군민의 장'으로 최초 시행돼 ' 으뜸군민대상'을 거쳐 현재, '부안군민대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18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 부문은 효열, 산업, 공익, 교육, 문화, 체육, 애향, 명예군민으로 총 8개 부문이다.

그동안 부안군민대상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장기간 반복 운영으로 후보자 발굴의 어려움이 있었고, 부분별 수상자 선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해 매년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안군은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1일간 군보, 홈페이지를 통해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부안군민대상 수상을 매년에서 격

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후 부안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부안군의회 제34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4월 4일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민대상은 군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군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1인을 선정 수상하는 부안군에서 가장 권위 있고 품격 높은 상이다.”라며, 앞으로 상에 걸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격년추진과 엄격한 심사로 부안군민대상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격년제로, 오는 2025년에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수상후보자 접수, 서류심사, 현지실사, 군민검증,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도서관, 제60회 도서관 주간 행사 풍성

고창군도서관이 2024년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

도서관 주간(4월12~18일)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매년 운영하는 독서문화 캠페인 기간으로 올해는 제60회를 맞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운영된다.

고창군에서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창읍성 잔디밭 일원에서 '봄날 뜻지리 아의 도서관'을 연다.

'공포의 새우눈' 미우 작과의 만남, 다양한 독후 체험과 만들기 활동, 도서 나눔 토크(Book) 드림, 먹거리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주간에는 고창군 도서관 7개소(고창군립, 성호, 작은도서관 5개소)에서 다양한 도서전시, 문화강좌, 대출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도서전시는 △원화전시(무장글썸, 흥덕가은누리작은도서관) △과혜순도서전시(군립, 성호)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군립, 성호, 작은 5개소)가 이뤄진다.

문화강좌는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성호) △한 땀 한 땀 자수 책갈피(군립) △무장포교문 강독과 동화정신고취(군립), 대출 이벤트는 △봄 도서 대출자 선물 증정(성호) △방문자 뽑기이벤트(작은도서관 5개소)를 진행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편의점 정신 건강 검진지 비치

지역 내 편의점 8곳

정읍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스스로 쉽게 정신 건강 검진을 해볼 수 있도록 지역 내 편의점 8곳에 정신 건강 검진지를 비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효과가 인정된 비대면 정신건강 검진 체계다.

시민들은 정신 건강 검진지가 비치된 편의점에서 스스로 검진하고, 검진지를 해당 편의점 계산대에 제출하면 기프트콘을 교환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월말에 각 편의점에서 정신 건강 검진지를 수거한 뒤 고위험군을 선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정신 건강 검진지를 카페·음식점·약국·철물점 등으로 확대 비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무인 정신 건강 검진기를 도입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무장읍성보존회, 내일부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장읍성보존회(회장 김기욱)가 오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5차례에 걸쳐 고창군 무장현·관아와 읍성에서 '동화농민혁명의 현장, 무장읍성을 가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스토리텔링 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기획한 점이 인정되어 2022~2023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선정됐다.

이번 역사기행은 동화농민혁명의 시

발점이 된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녹두꽃이 피었소! 무명의 녹두전사들! 총체극 등 공연 △조선군 훈련장 △페이스페인팅 △새싹보리 인절미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읍성 비석에 새겨진 무장현의 정신 등을 알아갈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 체험으로 펼쳐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단계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단계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발굴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선정될 경우 60세 이하는 주 30시간, 61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

무하게 된다. 시급은 9860원이며,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가 입된다. 모집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기준(2024.5.20.) 18세 이상(2006.5.20.) 69세 이하(1954.5.21.) 시민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